

# TODAY EBS

## 9.23(유대종 강사)

네이버에 유대종을 치시면  
더 좋은 정보와 자료들이  
많습니다.

〈유대종 강사 약력〉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 1차 합격  
오르비 인강 강사  
분당 명인학원 고3 강사  
비타에듀 재수종합반 강사  
판교 연세 학원  
분당 강영호 국어 논술 학원  
부천 정율사관 학원  
저서: 국어 치열하게 독하게(2015)

### B6. 김광규, 「상행」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뜬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낮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향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 도로를 달러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 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1. '원색의 지붕'이 고향의 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다. (<보기>문제로 나올 때)(O,X)
2. 이 시 전체를 반어적으로 본다면, 흥미 있는 주간지'는 미묘한 정치 문제를 다룬 잡지를 뜻하는 시어이다.(O,X)
3. 이 시 전체를 반어적으로 본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당대인들의 순응적 자세를 뜻하며, 시적 화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O,X)
4. 다양한 심상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다.(O,X)
5. 이 시 전체를 반어적으로 본다면 '맥주나 콜라'는 현실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로해 주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O,X)

### B7. 최승호, 「대설주의보」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찌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놓을 듯  
은하수가 평평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찌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굽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1. 위 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굴뚝새'는 억압적 현실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 ② '눈보라'는 힘없는 민중들을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폭압적인 존재이다.
- ③ '솔개'는 '눈보라'와 마찬가지로 '굴뚝새'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 ④ '산짐승들'은 '등산객들'을 길 잃게 만드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이다.
- ⑤ '소나무'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고립되고 절망적인 존재이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大雪注意報]>의 특징은 뛰어난 사실적 관찰로, 그 관찰의 대상은 극도로 막혀 있는 삶의 상황이다. 최승호는 이 작품에서 상징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복합적인 양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소멸·파괴·고통의 정서를 바탕으로 작가는 철저하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마을의 모습에 대한 사실적 관찰이 작품의 바탕이 되고 있다.
- ② '눈보라'를 '군단', '계엄령'에 비유함으로써 뚜렷한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다.
- ③ '굴뚝새'와 '솔개'를 '눈보라'에 맞선 저항적 존재로 등장시켜 상황의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길 잃은 등산객들'이나 '굶주리는 산짐승들'을 통해 파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존재들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⑤ '외판집'에 '다투어 몰려오는' 눈보라의 모습을 통해 폭압적인 독재 권력을 고발하고 있다.

3.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각적 심상을 이용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삶의 지혜를 깨우치고 있다.
- ③ 명령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마을 지명을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이상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B8. 김소월 「길」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왯가왯 울며 새였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광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1. '가마귀'는 화자가 다다르고자 하는 이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O,X)
- 2. 시적 화자는 현재 내적 갈등의 상황에 있다.(O,X)
- 3. 단호한 어조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O,X)
- 4. 특정한 음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O,X)
- 5. '기러기'가 화자의 상황에 부러워하고 있음이 작품 전반에 드러나 있다.(O,X)

## B9. 이성부 「산길에서」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들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벽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들이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라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이들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1. '바람'은 화자가 겪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환기하는 소재이다.(o,x)
2. '서울'은 화자의 소망과 지향을 함축하는 시어이다.(o,x)
3.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o,x)
4.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여 물아일체의 경지와 그로 인해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O,x)
5. '부질없음'은 시어의 표면적인 의미와 다르게 '길'을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o,x)
6.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o,x)

## B10. 김남조, 「설일」

(가)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 년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나)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어미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긍정의 태도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는 인간적 감정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가)는 시적 허용과 중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의 시어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래'와 '소리'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지이다.
- ② (나)의 '돌층계'는 화자의 극복 의지가 형상화된 대상이다.
- ③ (가)의 '애련', '희로'는 시적 화자가 극복해야 할 속성 혹은 관념들이다.
- ④ (나)의 '겨울나무'는 화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자연물이다.
- ⑤ (나)의 '겨울나무'와 '바람'의 외적 갈등은 화자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부여하는 원동력이다.

B18. O, X, X, X, X

B19. 4, 3, 1

B20. X, O, X, O, X

B21. x, x, o, x, o, o

B22. 5, 3